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자아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최순옥¹ · 정애리²

¹부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울지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The Effect of Nurse Image,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Choi, Soonook¹ · Jung, Aeri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Bucheon University, Bucheon, Korea

²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Uijeongbu,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nursing profession, nurse image,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a positive nursing profession.

Methods: We conducted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profession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e collected data from 129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in Gyeonggi-do,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scores were as follows: nursing professionals at 3.70 ± 0.44 out of 5, nurse image at 3.98 ± 0.40 , self-efficacy at 3.17 ± 0.44 , and major satisfaction at 4.23 ± 0.57 . Factors influencing the nursing profession included age, motivation for choosing a nursing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and nurse image, with nurse image being the most influential factor, explaining 35.7% of the varianc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profession, and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help nursing students establish a positive view of the nursing profession.

Key Words: Nurse's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제정, 전문간호사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고령사회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대형병원의 건립 증가 등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가 제시한 2023년 병원

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사직률은 2020년 14.5%, 2021년 15.8%, 2022년 16%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근무연수 1년 이내 이직한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은 43.4%,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간호사가 전체 사직자의 80.6%에 해당하여 높은 사직률을 보인다[1]. 간호사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은 50% 미만에 불과하여 의료현장에서는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 및 고연차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2].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은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주요어: 간호사이미지, 간호 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Corresponding author: Jung, Aeri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712 Dongil-ro, Uijeongbu 11759, Korea
Tel: +82-31-951-3887, Fax: +82-31-951-3916, E-mail: aeri@eulji.ac.kr

Received: Sep 3, 2024 / Revised: Oct 23, 2024 / Accepted: Oct 28, 202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간호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남아있던 간호사의 사직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듯 간호사 사직과 관련된 간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전문대학 내 4년제 간호학과가 운영됨에 따라[3] 간호교육과 진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간호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호학과 입학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문대학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야가 간호학 전공이며, 4년제 대학에서도 간호학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4]. 하지만 간호학을 선택한 다수의 학생은 간호학에 대한 관심이 나 자신의 적성, 미래의 계획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타인의 권유, 취업의 수월성 또는 성적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부 간호대학생이 입학 후 대학이나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졸업 후 입장에서 적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5]. 이는 결과적으로 확실한 이념이나 목표 없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간호에 대한 포부나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에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규간호사가 조직 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직무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심리 반응, 대인관계의 어려움, 업무 수행 미숙 등을 고려할 때[6], 예상되는 현실 충격을 극복하고 간호사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가치관과 전문 직업관을 내면화하고 전문직 사회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요구된다[4]. 간호대학생이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조직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간호 실무에 대한 이해와 성찰, 폭넓은 수용을 통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규간호사가 조직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는 조직사회화 초기에 형성된 조직의식, 태도, 학습 및 행동 등이 신규간호사의 전 경력과정에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6]. 간호사의 조직사회화 정립을 위해서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사회화 이전에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 신념 등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6].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간호사로서의 정체의식을 분명히 할 경우 졸업 후 간호사로서 조직사회화 과정에 성공적으로 합류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로서의 신념, 인상 및 관념의 총합으로 정의되는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행위자의 만족과 의의와 직결되며, 실무자 및 전문가 행동의 기

준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념과 태도를 평가하는 틀을 제공한다[7]. 간호사는 전문지식과 기술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적 소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전문직관[6,8], 간호에 대한 체계적 견해와 간호활동 과정 및 직업에 대한 의식적 견해를 가져야 한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그 영향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성별이나 학제,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경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등의 개념에 관한 관계 조사연구와 주관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 학제,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경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주관성 연구 등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했지만 간호사이미지, 자아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서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간호사이미지, 자아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전문직관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교육과정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색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파악한다.
-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1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시간은 10분-15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9.2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에 연관성있는 변수를 평가한 선행연구[10]를 근거로,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일반적 특성 7개와 요인수 4개를 포함하여 총 예측변수 11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ES) 0.15,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80으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23명이었다. 탈락률 약 5%를 고려하여 총 130명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30부가 회수되었다. 응답이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한 129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윤은자 등[11]이 개발한 29문항을 김명희[12]가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총 18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실무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김명희[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이향련 등[13]이 개발하고, 장숙현[14]이 수정·보완한 간호 이미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자질 9문항, 역할 7문항, 사회참여 7문항, 대인관계 6문항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으로 처리하였다. 측정된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간호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 생각, 느낌과 관련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장숙현[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다.

3)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와 Maddux [15]가 Bandura [16]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입각하여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7]이 한국어로 번역한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조금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정적인 질문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홍혜영[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5였다.

4) 전공 만족도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김계현, 하혜숙[18]이 개발한 34문항으로 구성된 만족도 도구 중 이동재[19]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WIN 3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정도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의 평균 차이 분석은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익명성 보장 및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불이익이 없음을 관해 설명하고 서면 사전 동의서를 통해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이 106명(82.2%)로 많았고, 나이는 만 20세 이상 25세 미만인 60명(4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69명(53.5%), 기독교 45명(34.9%) 순으로 많았으며, 성적은 3.0~4.0 미만이 92명(71.3%)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64명(49.6%),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35명(27.1%)으로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전공 만족 여부는 만족이 85명(65.9%)으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9)

변수	구분	n (%)
성별	남	23 (17.8)
	여	106 (82.2)
학년	1학년	74 (57.4)
	4학년	55 (42.6)
나이	만 20세 미만	55 (42.6)
	만 20세 이상 - 만 25세 미만	60 (46.5)
	만 25세 이상	14 (10.9)
종교	기독교	45 (34.9)
	가톨릭교	10 (7.8)
	불교	5 (3.9)
	무교	69 (53.5)
성적	4.0 이상	10 (7.8)
	3.0~4.0 미만	92 (71.3)
	2.0~3.0 미만	27 (20.9)
간호학과 선택동기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7 (5.4)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35 (27.1)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64 (49.6)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11 (8.5)
	기타	12 (9.3)
전공 만족 여부	만족	85 (65.9)
	보통	38 (29.5)
	불만족	6 (4.7)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정도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0 ± 0.44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별 평균은 간호계의 역할 4.22 ± 0.68 점, 전문적 자아개념 4.20 ± 0.51 점, 간호의 전문성 4.11 ± 0.61 점, 사회적 인식 3.46 ± 0.72 점, 간호의 독자성 1.76 ± 1.08 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98 ± 0.40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자질 4.35 ± 0.52 점, 사회참여 4.22 ± 0.52 점, 역할 3.84 ± 0.52 점, 대인관계 3.32 ± 0.41 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7 ± 0.44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평균은 사회적 자기효능감 3.26 ± 0.44 점, 일반적 자기효능감 3.14 ± 0.52 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여부는 5점 만점에 평균 4.23 ± 0.57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평균은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4.58 ± 0.51 점, 일반만족 4.12 ± 0.76 점,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4.03 ± 0.81 점,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96 ± 0.76 점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정도

(N=129)

변수	구분	M±SD	Min	Max
간호 전문직관	전문적 자아개념	4.20±0.51	2.83	5.00
	사회적 인식	3.46±0.72	1.20	5.00
	간호의 전문성	4.11±0.61	2.33	5.00
	간호계의 역할	4.22±0.68	2.00	5.00
	간호의 독자성	1.76±1.08	1.00	5.00
	총합	3.70±0.44	2.44	4.67
간호사 이미지	자질	4.35±0.52	3.00	5.00
	역할	3.84±0.52	2.57	5.00
	사회참여	4.22±0.52	3.00	5.00
	대인관계	3.32±0.41	2.17	4.33
	총합	3.98±0.40	2.90	4.72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3.14±0.52	1.94	4.94
	사회적 자기효능감	3.26±0.44	2.17	4.50
	총합	3.17±0.44	3.00	4.09
전공만족 여부	일반만족	4.12±0.76	1.00	5.00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4.58±0.51	2.50	5.00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96±0.76	1.00	5.00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4.03±0.81	1.67	5.00
	총합	4.23±0.57	1.61	5.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간호학 선택동기($F=2.670, p=.035$), 전공만족여부($F=10.28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ukey 사후 검증결과 전공 만족 여부가 보통보다 만족이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3).

4.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이미지($r=.584, p=.001$), 전공만족도($r=.44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사 이미지는 전공만족도($r=.63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28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4).

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하고,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일반적 특성인 간호학과 선택동

기, 전공만족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간호학과 선택동기 변수는 취업률이 높아서를 1로 나머지를 0의 값을 갖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36.530, p<.001$),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975로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25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2.054로 2와 가까워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이미지($\beta=.559, p<.001$)였고, 변수들은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을 35.7%로 설명하였다(표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점으로 이규은, 서임선[20]의 평균 3.56점 보다는 높았고, 김유정[21]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N=129)

구분	영역	간호전문직관	
		M±SD	t or F (p)
성별	남	64.52±7.50	1.399 (.164)
	여	67.06±7.95	
학년	1학년	66.91±7.76	0.500 (.618)
	4학년	66.20±8.16	
나이	만 20세 미만	67.96±6.44	1.758 (.177)
	만 20세 이상 - 만 25세 미만	65.95±8.61	
	만 25세 이상	64.07±9.49	
종교	기독교	68.27±7.95	1.134 (.338)
	가톨릭교	64.40±7.91	
	불교	66.40±9.56	
	무교	65.86±7.75	
성적	4.0 이상	66.85±8.94	0.044 (.975)
	3.0~4.0 미만	66.48±7.90	
	2.0~3.0 미만	67.10±5.13	
간호학과 선택동기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64.43±7.09	2.670 (.035)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68.91±6.95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64.63±7.86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69.00±5.69	
	기타	69.50±10.49	
전공만족여부	만족 ^a	68.71±7.10	10.284 ($< .001$) a > b
	보통 ^b	62.26±7.54	
	불만족 ^c	64.33±10.41	

표 4.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N=129)

변수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r (p)	r (p)	r (p)	r (p)
간호전문직관	1			
간호사 이미지	.584 (.001)	1		
자기효능감	-.053 (.551)	-.101 (.255)	1	
전공만족도	.441 ($< .001$)	.639 ($< .001$)	-.282 (.001)	1

표 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29)

변수	B	S.E.	β	t	p
(Constant)	24.376	5.726		4.257	$< .001$
간호사 이미지	0.376	0.048	.559	7.789	$< .001$
간호학과선택동기(취업률이 높아서)	-2.543	1.130	-.161	2.250	.026
$R^2=.367$, Adjusted $R^2=.357$, $F=36.530$, $p < .001$					

의 평균 3.70점과 유사하였으며, 임정민[22]의 평균 3.96점 보다 낮았다. 간호전문직관은 비판적 사고 능력, 리더십과 더불어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을 통해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질

이며[23],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하고 간호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뛰어난 직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간호가치관이나 전문직관이 확고히 형성되기 전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

면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24]. 따라서 대학생 때부터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모색의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3.98점으로 이규은, 서임선[20]의 평균 3.96점과 유사하였고, 김유정[21]의 3.80점보다 높았다.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자질 4.35점, 사회참여 4.22점, 역할 3.84점, 대인관계 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간호사이미지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간호현장에서 간호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실습에서 경험하는 이론과 실습의 괴리,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간호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 등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에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24]. 간호대학생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간호에 대한 자부심과 간호만족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며, 간호사 이미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에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5점 만점에 3.17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은 사회적 자기효능감 3.26점, 일반적 자기효능감 3.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중경 외[26]의 3.07점보다는 높고, 김혜정[27]의 3.17점과 유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기대 정도에 따라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16],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4.23점으로 김유정[21]의 3.71점, 이규은, 서임선[20]의 평균 3.92점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이 4.58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간호학 선택동기, 전공만족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규은, 서임선[20]의 연구에서 연령, 간호학 선택동기, 간호학에 대한 본인의 생각, 임정민[22]의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과 선택동기가 고교성적, 졸업 후 취업률이 다른 동기에 비해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학과 입학시 학과 선택 동기 조사 결과에서 성적이나 취업으로 인해 선택했다고 답변하는 학생들에 대해 더 민감하게 전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보면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사 이미지는 전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이규은, 서임선[20]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사이미지는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구혜자, 이외선[28]의 연구와 이은선, 박명숙[29]의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변수는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여부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였고, 이들의 설명력은 35.7%였다. 이는 주현정[30]의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이미지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20] 간호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간호전문성 향상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인 전공만족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점, 간호사 이미지는 3.98점, 자기효능감은 3.17점, 전공만족여부는 4.23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나이, 간호학 선택동기, 전공만족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이미지, 전공

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는 전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여부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변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였고, 이들의 설명력은 35.7%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의 가치와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전문직관 향상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 구축,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향상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병원간호사회 자료실 no 399. 2023.
2. 최연숙. 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연구. 연구보고서. 2021. 11. 30.
3. 한국간호교육평가원. 17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 설명회 지정요건 심사기준 발표자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5. May 26. 13 p.
4. 고영지, 김인경.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1;17(1):62-71.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62>
5. 최순옥, 박진경, 김상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5;21(2):182-189.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182>
6. 김문실, 최순옥. 조직사회화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003;9(1):19-30.
7. Wies D, Schank MJ. Toward build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in professional values. Nurse Educ Today. 1997;17:366-369. [https://doi.org/10.1016/S0260-6917\(97\)80096-2](https://doi.org/10.1016/S0260-6917(97)80096-2)
8. 윤은자. 간호단위 관리자의 전문간호 이미지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1995. 170 p.
9. Weis D, Schank MJ.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00; 27:114-120.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10. 박병준, 박선정, 조하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연관성.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6;17(7):220-227. <https://doi.org/10.5762/KAIS.2016.17.7.220>
11.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005;35(6):1091-1100.
12. 김명희.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2008. 62 p.
13. 이향련, 최경옥, 고정은, 홍미령, 김숙영, 신혜숙.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1992;15:45-65.
14. 장숙현.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1998. 48 p.
15.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51: 663-671.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16.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84: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17. 홍혜영.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95. 73 p.
18. 김계현, 하혜숙. 대학생의 學科(學部)滿足의 要因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2000;1(1):7-20.
19. 이동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적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2004. 59 p.
20. 이규은, 서임선.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 2022;28(1):37-47.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21. 김유정.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20;14(8):265-276. <https://doi.org/10.21184/jkeia.2020.12.14.8.265>

22. 임정민.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영향 요인: 감성지능과 간호전문직관 중심으로.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2024; 27(1):213-228.
<https://doi.org/10.21289/KSIC.2024.27.1.213>
23. 박현주. 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5;21(2):227-236.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24. 박미영, 김순이.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체험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0;6(1):23-35.
25. 최현주.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한국보건의료산업학회지. 2016;10(4):225-237.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4.225>
26. 김중경, 김원종, 이선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0;21(7):120-126.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20>
27. 김혜정.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20;14(8):315-322.
<https://doi.org/10.21184/jkeia.2020.12.14.8.315>
28. 구혜자, 이외선. 간호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5;16(11):7356-7366.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7356>
29. 이은선, 박명숙.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 개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융복합적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2017;15(1):311-320.
<https://doi.org/10.14400/JDC.2017.15.1.311>
30. 주현정.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4;25(3):89-101.
<https://doi.org/10.5762/KAIS.2024.25.3.89>